
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 <h2 style="margin: 0;">브리핑시(14:00)부터 보도가능</h2>	
---	--	---

작성부서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자격시험관리실		
책 임 자	이명순 과 장(2156-9879) 전상훈 본부장(2003-9800)	담 당 자	송병관 사무관(2156-9872) 김형기 실 장(2003-9410)
배 포 일	2014. 4. 24(목).	배포부서	대변인실(2156-9543~48) 총 7매 홍 보 실(2003-9311~14)

## 제 목 : 금융투자 판매 · 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

### 1. 추진 배경

☐ 투자상담사 시험 및 교육제도는 그간 자본시장 전문인력 양성 측면에서 기여했으나, 최근 한계 및 문제점이 노정

① 투자상담사 시험이 금융회사 취업 조건으로 인식되어 취업준비생의 부담 및 사회적 비용을 유발

\* 비금융회사직원 응시생 비중(%) : ('10) 35.7 → ('11) 47.3 → ('12) 60 → ('13) 67.7

\*\* 투자상담사 시험 관련 사교육비도 '10년~'13년간 최대 1,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

② 투자상담사 교육이 날로 간소화되고 있어 당초 취지인 투자자 보호 달성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증가

### 2. 개선방안

☐ (시험) 투자상담사시험이 금융회사 취업 조건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시험제도 개편

○ 동 시험이 필요한 실수요자만 시험을 응시토록 응시 요건 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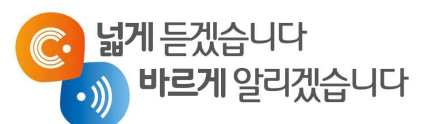
☐ (교육) 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의 방식 및 교육 시간을 대폭 강화

※ 상세 내용은 별첨 자료 참고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fsc.go.kr>



---

# 금융투자 판매·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방안

---

2014. 4

금 융 위 원 회  
금 융 투 자 협 회

## I

## 금융투자 판매·권유 자격 제도 현황

□ 자본시장법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에게만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및 판매를 허용(은행, 보험 등 타 권역도 적용)

\* 非전문인의 판매·권유는 금지(법§71), 5억이하 벌금 및 10년이하 징역 부과

○ 판매·권유인력의 전문성은 금투협에서 관리하도록 함(법§286)

□ 금투협은 판매·권유 전문인력을 투자상담사로 통칭하고, 자격증 시험을 운영

○ 금융회사 직원 여부와 취급 가능 상품에 따라 구분

- (소속별) 금융회사 직원인 투자권유자문인력(이하 판매인)과  
외무원인 투자권유대행인\*(이하 권유인)으로 구분

\* 금융회사 직원이 아닌자로서 투자권유만 가능하고 판매는 불가

- (상품별) 펀드·증권·파생상품투자상담사로 구분

○ 금투협 주관 시험을 통해 자격을 부여하고 등록·보수 교육 시행

- (시험) 3종 시험 각각 4과목 총 100문항으로 구성

\* 합격기준 : 각 시험당 4과목 평균 60점, 과락 40점

- (등록교육) 합격 후 업권별 교육원\* 주관 10~15시간의 교육\*\* 이수

\* 금융투자교육원(증권, 파생, 펀드), 금융연수원(펀드), 보험연수원(펀드)

\*\* 교육과목 : 법규, 직무윤리, 영업실무, 금융상품 관련 등

- (보수교육) 등록된 판매·권유인은 2년마다 10시간의 보수 교육 이수

□ '13년말 기준 14.4만명의 판매인과 3.2만명의 권유인이 등록

## 투자상담사 등록 현황

구 분(단위 : 명)	펀 드	증 권	파 생	합 계(중복제거)
판매인(금융회사 직원)	131,122	98,739	49,839	144,398
권유인(非 직원)	30,841	5,232	-	32,526
합 계	161,963	103,971	49,839	176,924

## Ⅱ 금융투자 판매·권유 자격 제도 개선 필요성

□ 투자상담사 시험 및 교육제도는 그간 자본시장 전문인력 양성 측면에서 기여했으나, 최근 한계 및 문제점이 노정

① 금융회사 취업 조건으로 인식되어 취업준비생의 부담 및 사회적 비용을 유발

○ 금융회사는 신규 인력 채용시 인건비 절감 측면에서 투자상담사 자격증 보유자를 선호

\* 10개사 표본조사 결과 신입직원 선발에 동 자격증 보유 여부를 고려하는 곳은 7개사(3개사 가점 부여, 4개사 참고자료 활용)

- 이는 투자상담사가 별도의 교육 또는 시험 없이도 금융투자상품 판매인으로 즉시 활용\* 가능한 점에 기인

\* 투자상담사 자격증 보유자는 未보유자에 비해 최소 3개월 이상 영업점 활용 가능 시점이 빠름

- 이에, 최근 非금융회사직원 시험 응시 비중이 지속 증가 추세

\* 비금융회사직원 응시생 비중(%) : ('10) 35.7 → ('11) 47.3 → ('12) 60 → ('13) 67.7

○ 사설 교육업체의 난립 등으로 투자상담사 시험 관련 사교육비도 '10년~'13년간 최대 1,000억원\*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

\* 3종 투자상담사 응시생 53.2만명 × 20만원(1인당 교재비 및 사설업체 인터넷강의료)

② 등록 교육이 지속적으로 간소화\*되어 당초 취지인 투자자 보호 달성에 애로

\* (예) 펀드투자상담사교육 : 시험 전 필수교육 30시간 → 시험 후 15시간

○ 비용효율성 측면에서 대부분 교육이 E-learning으로 이루어지고, 법규·윤리·분쟁 예방 교육은 교육시간의 40~50% 할애

### Ⅲ 금융투자 판매·권유 자격 제도 개선 방안

#### < 기 본 방 향 >

- ◇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폐지하고,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격성 인증제도로 전환
- (시험) 판매인 인증 시험은 금융회사 직원만 응시 가능토록 응시 자격을 조정하고, 난이도 등 상향 조정
- (교육) 판매인 인증 시험 전 10시간 이상의 투자자 보호 관련 집합 교육을 의무화

#### 1. 판매자격증 제도 현황 및 문제점

- ① (시험) 판매인 자격증 시험은 금융회사 직원에만 필요한 시험임에도 누구나\* 응시 가능

\* 이는 판매인 시험을 외무원인 권유인 시험과 통합 운영함에 따른 결과

- 응시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와 취업준비생들의 유인 구조 일치로 상담사 시험에 과도하게 집중
  - (금융회사) 회사가 부담해야할 교육비, 시험비 절약 및 투자 상품 판매인으로 즉시 활용 가능함에 따른 기회비용 절감
  - (취업준비생) 경쟁자보다 비교우위를 확보
- ➡ 시험 합격 후 非금융회사에 취업한 인력들의 경우 투입한 노력과 비용이 사회적 낭비로 귀결

② (교육) 판매인 자격증 시험 통과 후 판매인 등록 전 각 업권 교육원이 주관하는 10시간~15시간 교육 실시

- 금융회사들의 교육비 및 인건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E-Learning 위주로 실시
- 상품관련 교육 및 실무교육 위주로 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은 상대적으로 취약

➡ 투자자 보호 목적 달성에 소홀하다는 비판 증가

## 2. 개선 방안

□ 판매인(금융회사 직원) 자격증을 폐지하고 금융회사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적격성 인증 제도로 전환

- 적격성 인증제도는 시험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집합 교육으로 구성

① (인증 시험) 투자자 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금융회사 직원에게만 시험 자격을 부여하고 출제범위, 문제 난이도, 합격 기준 등을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보다 강화

### < 강화방안 예시 >

① 출제 문항 : 현행 100문항에서 120문항으로 20문항 추가

\* 현행 : 법규, 상품일반, 영업실무, 세제 / 추가과목 : 윤리 및 분쟁예방

② 합격 기준 : 평균과 과락 각각 10점 상향

\* 현행 : 과락 40점, 평균 60점 / 개선 : 과락 50점, 평균 70점

- 권유인 시험은 자영업을 희망하는 사람을 위해 현행 유지하되, 판매인(금융회사 직원)과의 연계성을 절연
- 권유인 자격증 보유자도 금융회사 직원으로 취업시 권유인 자격증 未보유자와 동일하게 적격성 인증을 받도록 함

② (사전 교육) 적격성 인증 시험 전 강화된 투자자 보호 관련  
집합 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

- 사전 교육은 자본시장법상 자율규제기관이 인증한 교육원이  
시행하는 투자자 보호 관련 10시간 이상 집합 교육\*으로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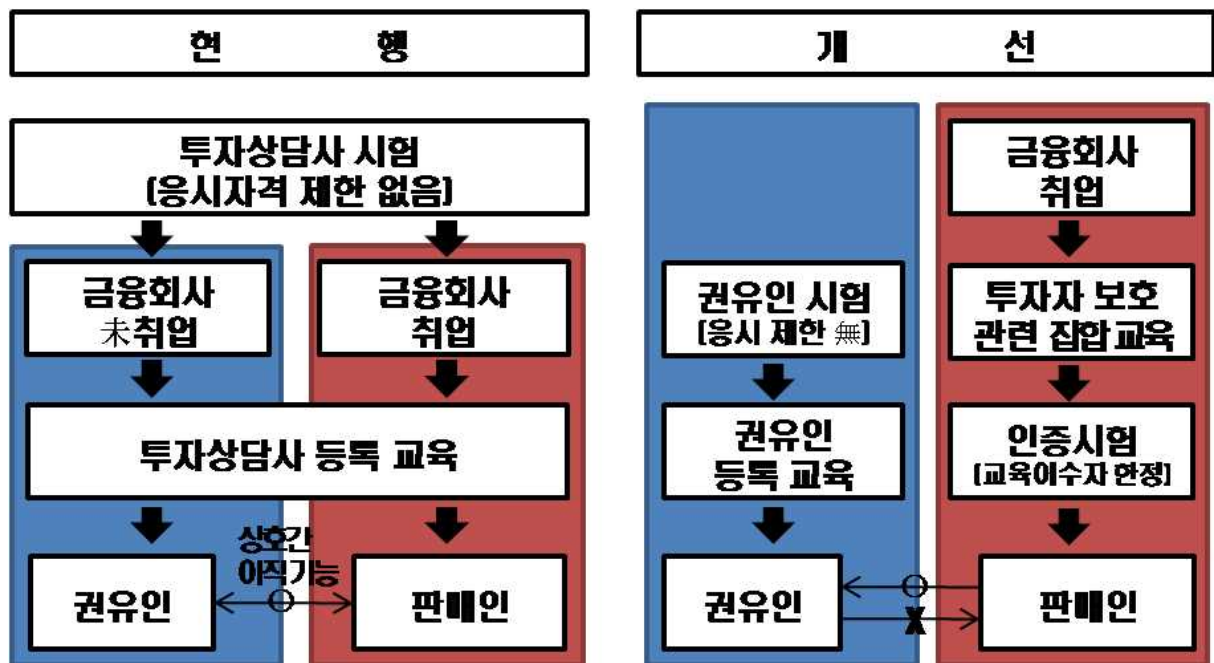
\* (예) 법규, 분쟁예방, 직무 윤리 등에 대한 Case Study 중심 교육

- 상품 등 전문성 관련 교육은 금투협과 금융회사간 협의를 통해  
자율적으로 실시

※ 자영업자인 권유인\*의 경우, 비용 부담 및 실제 계약을 체결할 수  
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현행 E-learning교육 체계를 유지

\* 펀드투자권유대행인 3만명 중 보험설계사가 1.8만명 수준

투자상담사 시험 개선방안 전후 비교



### 3. 시행 시기

- 제도 개선 준비 기간, 현재 시험을 준비 중인 응시생의 기대이익  
등을 감안하여 '15년부터 실시

※ (경과조치) 14년말까지의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을 합격한 자는 판매인  
시험을 합격한 것으로 간주